

Session 07 분노의 영을 극복하기 (마 5:21-26)

(Overcoming the Spirit of Anger)

I. 살인의 영: 증가하는 분노

A. 산상수훈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은혜와 협력해나가는 성도의 역할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언급이다. 우리에게는 팔복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는 믿음의 가르침이 더욱 많이 필요하다. 복이 있음에 대한 약속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심으로,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됨을 말한다.

B.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에 해를 주며(벧전 2:11) 우리의 마음과 싸우는 6 가지 유혹(마 5:21-48)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분이 언급하신 첫 번째는 분노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흔하고 우리 안에 너무도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언급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

*21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3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5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 5:21-26)*

C. 예수님께서서는 구약의 도덕률을 높이고 계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구약의 본래 의도들을 설명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여섯째 계명을 통해, 살인의 영이 우리 마음에서 자리잡기 않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인은 분노의 영이 궁극적으로 표출되어서 다른 이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빼앗아가는 것으로 생각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형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며(창 9:6; 레 24:17; 출 21:12-14; 민 35:16-17), 침략행위로 인한 방어 전쟁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며 가르치신 것도 아니었다.

D. 예수님께서서는 살인의 영이 여러 단계로 작용한다는 것과, 여러 단계를 거쳐 자라남을 가르치셨다. 우리는 분노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데, 이는 영적인 암과 같아서,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분노와 관련된,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하는 연약함을 안고 태어났다. 분노의 감정은 살인의 영이 나타나는 첫 번째 단계로써, 이는 쓴 마음으로 자라나서 분노하는 말로 표현되며, 그 다음은 복수심이 가득한 행동으로 번져간다.

15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히 12:15)

E.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거나 쓴 마음을 품은 사람은 누구든 살인의 영을 품은 것이다. 사단은 우리를 더 큰 살인으로 이끌기를 은밀하게 힘쓰는 살인자이다(요 8:44). 그는 우리의 **최악된 연약함**이 분노와 연결되어서

악한 견고한 진으로 커져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사단은 우리의 협조가 필요하다. 사단은 우리의 영을 더럽히기를 원하며,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영을 감옥에 가두기를 원한다.

15 그 형제를 미워하는 (쓴 마음을 품고 있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 (요일 3:15)

- F.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서는 분노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밝혀주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자유케 되는 유일한 길은, 분노가 발견될 때마다 매 번 빠르게, 그리고 완전하게 처리하는 것이다(마 5:22-26).

II. 분노를 극복하기: 4 가지 원리

- A. **원리 #1:** 분노하는 자는 누구든 하나님과 사람의 법정의 심판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22a 절). 왜인가? 분노는 우리 안에서 강하게 커져가는 속성이 있으며, 이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한글 KJV: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 (마 5:22a)

1. 분노는 때때로 우리의 목적(명성, 안락, 재정 등)을 가로막는 자들로 인해 발생한다.

1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2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 (약 4:1-2)

2.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셨다, “너의 분노의 크기는, 너의 보이지 않는 자만심(pride)의 크기이다.”
3. 분노에 대한 심판은 분노의 정도에 따라 여러 단계가 된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 형성에 강한 영향을 끼치며,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과도 강한 연관성이 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천사나 악마적인 권세가 우리의 삶 안에 역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를 열어주게 된다.
4. 살인의 영은 정확히 우리가 이것에 대해 문을 열어주는 만큼 역사한다. 공공 장소에서 우리가 사회적 매너를 생각해서 잠잠할 수도 있지만, 마음 속에는 분노를 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 B. **원리 #2:** (회개함 없이) 분노함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이 행동들로 인한 결과가 틀림없이 확대되기 때문이다(22b 절). 이로 인해 그들 안에서는 분노(살인)의 견고한 진이 형성되며, 상대방은 상처를 입게 되며, 관계는 깨어지며, 부정적인 환경은 커져만 가며, 마음이 강박해짐으로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된다.

22 ...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 5:22b)

1. 라가 또는 미련한 놈: 이 말들은 분노할 때 모욕을 주는 말이다. 어떤 이를 “라가”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을 저능아, 바보, 미련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말이다.
2. 우리가 누구관대 경멸하는 말로 다른 이의 마음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라고 주장하는가? 우리가 과연 누구관대 우리 자신을 다른 이들 위에 높이는가?

3. 우리가 분노로 행동하고 모욕을 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분노가 자라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살인의 영은 우리가 이에 대해 문을 열어줄 때 생기는 “합법적인 권리”의 최대한을 장악한다.
 4. 우리가 경건한 말과 행동을 할 때, 우리의 감정은 이를 따라가게 되며 천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경건치 못한 (분노하거나 부도덕한) 말과 행동을 할 때, 우리의 감정은 이를 따라가며 악마(귀신)는 우리의 사람 가운데 더욱 많은 일을 하게 된다.
- C. **원리 #3:** 우리는 신속히 분노(살인)의 영의 반대되는 영으로 행동해야 한다(23-24 절). 우리가 반대되는 영으로 행동할 때, 이로 인해 우리 마음 안에 거주하고 있던 독성은 치유된다.

23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 5:23-24)

1.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여기서 형제를 실족케 한 일(23 절)을 형제에 대해 분노의 말을 쏟아내는 것(22 절)과 연결시키신다. 우리는 형제들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심과 같이 대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온유함과 긍휼이 가득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에 대해 초청하신다.
 2.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예물)은 그분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 드리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분노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형제를 실족케 한 것을 못 본채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예물들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지체함이 없는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러 갈 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예물을 두고 먼저 다른 이들과 온전케 되기를 원하신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자백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3. **먼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노함으로 말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가 없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우리가 형제를 잘못 대할 때, 우리의 예배는 어려워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
 4.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형제 자매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대신해 죽으신 이들이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 부활하심은 그분이 자신이 구원하신 이들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셨음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그분께 속한 자들에게 분노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과 연합함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가 없다. 형제, 자매와 화평하는 것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어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 순복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며,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5. 성삼위 하나님 간의 하나됨은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가지는 관계를 통해 드러난다. 성삼위의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의 교제(fellowship)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 이 영광스러운, 사람들의 공동체는 하나님과 긍휼에 가득 찬 그분의 성품에 뿌리는 두고 있다.
- D. 가인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기보다 자신의 방법으로 예배 드리려고 했다. 가인은 인류 최초로 쓴 뿌리와 씨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셨다(창 4:6-7). 가인은 하나님과 아벨에게 화가 나 있었다. 그는 실망과 자기 연민으로 얼굴을 들지 못했다.

6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얹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 4:6-7)

- E.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선을 행할 기회와, 그가 선을 행하기만 했다면 좋은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로 부르실 때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신다.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우리가 선한 선택을 “끝까지 이어갈 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얹드리며 사자가 덩불 뒤에서 먹잇감에게 조용히 다가갈 때처럼 다가온다. 우리가 이에 대해 열어주면 쓴 뿌리는 죄가 더욱 크게 드러나도록 할 것이며, 이는 우리의 감정의 다른 영역으로 암처럼 퍼지게 된다.
- F. **원리 #4:** 우리는 회개하기를 거절한 분노로 인한 빛을 전부 갚게 되어 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만, 그리고 우리를 묶고 있던 분노를 하나님의 은혜로 대체하는 것을 통해서만 자유케 될 수 있다.

25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 5:25-26)

- 1. 예수님께서서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통해 예를 보여주셨으며, 빛을 갚지 않아 감옥에 갇힌 사람에 대해 말씀하셨다.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이 빛을 갚지 않은 죄가 있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회수하기 위해 그를 재판관에게 넘겼다. 만일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은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혔다. 우리는 이 비유를 구성하는 단어들 각각에 대해 상징적인 의미를 따지기보다 핵심을 이해해야 한다.
- 2. **진실로:** 예수님께서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분노를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에 묶여 있게 됨을 보여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값 없이 받았기에, 사람들을 사랑할 빛을 지고 있다. 그분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성도인 우리는 분노를 이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라 할지라도 분노의 큰 힘을 맛보게 될 것이다.

8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롬 13:8)

- 3. **옥:** 계속해서 분노를 품은 사람은 틀림없이 감정적인 묶임 등을 경험하게 된다.
- 4. **급히 사화하라:**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재빨리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하며, 법정에 가기 전에 문제를 풀어야 한다. 즉, 우리는 모든 일들이 악화되기 전에 형제에게 다가가 우리를 용서해줄 것을 구함으로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한다. 이는 쓴 마음이 악화되기 전에 재빨리 해결하는 것이다. 쓴 마음과 분노로 인한 결과는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는다.
- 5. **고발하는 자(한글 KJV: 대적):** 우리의 분노는 우리를 고발하는 자(대적)이다. 우리가 분노에게 항복할 때, 분노는 우리를 옥에 가둘 힘을 얻게 된다.
- 6.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분노의 영적인, 감정적인 빛으로부터 빠져 나오는 길은 이에 대해 회개하고, 우리가 분노를 표현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다. 오직 이것만이 해결책인데,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그분의 용서하심과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아들일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분노가

값없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해놓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야, 우리가 분노로 인해 은혜 가운데 자라날 기회를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지 알게 될 것이다.

7.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모든 빛을 다 갚기 전에는 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조명하시는 모든 부분의 분노를 회개함으로 이를 행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분노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값을 우리의 감정, 관계, 환경 안에서 치르게 된다. 따라서, 가혹한 값을 치르기 전에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며, 이 원리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